참교추 게시판

『참된 교회를 꿈꾸며』

최은상 목사 | 광야의샘교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인지 물으면 '광야'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잠시 머무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곳 중의 하나가 '광야'였습니다. 한여름 내리쬐는 태양에 반사된 황금빛 광야와 멀리 보이는 사해를 함께 보노라면 왜 사람들이 광야를 좋아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기철 비가 내리는 겨울의 광야는 한여름 광야와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황금빛의 웅장한 모습이 아닌 비가 내린 후 광야는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이곳 저곳 피어 있는 푸르른 생명의 들판입니다. 처음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광야는 뜨거운 태양에 황금빛의 웅장함을 가졌으나 사막과 같이 죽어 있는 땅으로 생각했는데 비가 내리자 그곳은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한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광야와 같이 황량한 땅도 비가 내리고 물이 흐르면 살아나서 그곳에 꽃이 피고 숲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광야에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다고 생각될 때 기억해야 될 한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광야에도 비가 내리면, 그 광야에도 샘이 솟아 물이 흐르면, 그곳도 생명의 골짜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인생 가운데 주신 영원한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수가 우리에게 흐르게 될 때 광야와 같이 죽어 있던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살아납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사 41:18)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4)

이 말씀들과 같은 마음으로 2018년 10월 '광야의샘교회'를 개척하여 "주일은 쉽니다"라는 푯말이 적힌 식당의 한켠을 빌려 예배드렸던 교회는 이제 광교에 정착하여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3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요 감격의 시간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초보목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 하면서 여러가지 실수도 하였던 좌충우돌의 시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그 살아난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기도하고 소망하였지만 실제 교회 개척과 모든 교회의 사역 속에서 선명한 복음적인 기초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음을 날마다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로 하여금 저 자신을 점검하며 복음으로 세워지는 참된 교회를 소망하며 되돌아보게 하였던 곳이 바로 참교추 모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2019년 참교추 '목회실천 모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참교추의 모임에 참석하며 참된교회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때때로 분명하지 않은 순간들 속에서 많은 도움을 받곤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를 때 그 본질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였고, 복음적인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에 대하여 고민할 때 묻고 도움을 받았던 곳이 바로 참교추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광야의샘교회를 섬기며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세상과 다른 교회 더 뛰어난 교회가 되기 보다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교회, 한 영혼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며 연약함을 날마다 보지만 그렇기에 더욱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무익한 종으로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참교추와 함께한 시간들을 돌아보며』

신용화 목사 | 주님의숲교회

'주님의숲교회'는, 2011년 3월, 수원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평촌의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10년간 사역한 후 개척하였습니다. 교회의 처음 위치는 수원 곡반정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여간 머문 후 현 교회가 세워진 '광교'로 이전하였습니다. 처소를 옮긴 지도 벌써 7년이나 되었군요. 다음 달 3월이면 어느덧 개척한지가 10년이 됩니다.

참교추는 교회를 개척한 그 즈음에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참교추와 함께 한 지도 10여년 가까이가 되었네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던 중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청교도와 개혁주의 신학을 흠모하여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박순용 목사님에 대해 들었고, 이후 목사님의 저서들과 설교를 통해 도전과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참교추와 함께하여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교추는 제게 있어서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하며 점검케 하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단순하고 반복된 삶은 쉽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교추 안에서 함께 독서하고, 서로의 목회를 진실히 나누면서, 개척할 때 서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날 한국은 참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현실을 가져온 여러 원인들 중,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곧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진리의 등불을 비춰야 하는 목회자의 소명이 얼마나 귀한지요! 거룩한 사명의 막중함을 더욱 크게 깨닫는 요즘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곧 '진리'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늘 있어왔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은 더욱 컸습니다. 하지만 "혼란할 수록 더욱 본질로 돌아가라!"고 했던 개혁주의 선배들의 격언처럼 더욱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분투해야겠습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보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는 여러 어려움과 갈등들도 있었지만,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가자! 말씀대로!"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잘못된 것이 확인되면, 제 개인이든, 목회든, 교회든, 진리에 순종함으로 계속 바뀌고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교추를 통해 함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참교추 일정안내

정기 모임	매월 3번째주 월요일 (2월 15일)
정기 세미나	5월 마지막주 월-수 (5월 24-26일)
컨퍼런스	10월 마지막주 월요일(10월 25일)
부부 수련회	코로나로 일정 연기

♣ 참교추 정기모임 조편성

1조	김영제 배국환 김명일 이희석 강성대 서재길 김성민 임정택 김완술
2조	김훈 안기문 김용석 김시온 김영남 정병윤 김중구 강성일 이준동
3조	이성규 최은상 박지성 박경태 김종원 강욱남 오준석 김대섭 박상우
4조	정종남 강동훈 이대원 정우열 김학재 강사명 이성준 차지태
5조	권오인 이원범 박충성 고경석 김선민 신용화 김양수 황범진

♣ 참교추 홈페이지

www.fortruechurch.com

♣ 신입회원 소개

김선민 목사(43, 김포시)

김성민 목사(27, 암사동)

박경태 전도사(30, 양산시)

박지성 강도사(44, 암사동)

안기문 목사(53, 포천시)

오준석 목사(38, 삼전동)

이희석 목사(41, 시흥동)

황범진 목사(46, 상봉동)

♣ 2021년 회원교회

- 광명믿음교회
- 광야의샘교회
- 높은뜻교회
- 두루선교교회
- 물댄동산교회
- 백마누리교회
- 생철교회
- 세계로교회
- 송정교회
- 심플교회
- 양무리교회
- 영남교회
- 오빈교회
- 은혜의숲교회
- 주님의숲교회
- 참사랑교회
- 충만한교회
- 하늘가족교회
- 하늘기쁨교회
- 하늘영광교회
- 함양민들레교회
- 버밍엄한인교회

月刊 참교추

2021년 3월호 통권 2호

참교추 칼럼

완전한 사랑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연인 간의 사랑, 반려 동물과의 애착 등 다양한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사랑에 충족되지 못하고 목마름을 느낍니다.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봅시다.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 헌신적인 사랑을 줍니다.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이 부모의 사랑일 만큼 이 사랑은 경험적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어떨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만족감을 경험합니까? 아닐 것입니다. 부모를 향해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부모를 향해 힘을 다해 공경하고 사랑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랑을 받는 부모들은 사랑의 충족을 경험합니까? 이 또한 아닐 것입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슬피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서운한 마음에 한숨을 내뱉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입니다. 만족되지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목이 타듯 충족되지 못하는 사랑에 갈증을 느낍니다. 친구와의 우정도, 연인들의 사랑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랑도 이 내면의 목마름을 해갈하지 못합니다.

혹시 나는 아니라고 말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현재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이 맞습니까?

때로 우리는 사랑에 황홀감과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사랑에 진심으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흔한 말로 "콩깍지가 씌었다"함과 같습니다. 결국 사랑이 모자라고, 식어지며, 변하는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사랑에 굶주리고 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의 한계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이 땅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가변적이고 유한합니다.

사람들은 이 때문에 사랑에 목말라합니다. 그래서 아우성칩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사랑의 빈공간에 채우려고 끊임 없이 이것 저것을 넣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고 허기질 뿐입니다. 순간적으로 가려질 뿐이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진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을 할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불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존재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의 결정적인 이유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순결한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온전한 사랑을 하고 싶어도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땅의 존재에게서 사랑을 충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소식입니다. 한계가 있고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랑이 아닌, 완전한 사랑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무한하고, 불변하며, 영원하며, 온유한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 완전한 사랑을 누리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또한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있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은 결코 부족함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놀라운 점은 이 땅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권력자와 같이 강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 지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죄사함의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한한 사랑으로 값 없이 초대한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늘 위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땅 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랑을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외치고 계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거부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이 세상의 누더기와 같은 유한한 사랑에 허기지고 목말라 합니다.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한한 사랑이 이 땅에 존재함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받은 사랑을 감격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불변하도록 만족케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얻고 싶다면 십자가에서 외쳐진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영원한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실 것입니다.

추천도서

예배의 타겟을 복음에 맞추라 제레미야 버로우스 / 진리의 깃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의 한 멤버였고 청교도 당시 인정받았던 설교자인 제레미야 버로우스가 쓴 이 책은 예배에 대한 죽은 내용들을 탁월하게 재현한 책입니다. 이 책은 버로우스가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가지고 14번에 걸쳐 설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의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의미 아래서 예배의 영광과 탁월함, 예배하면서 가져야할 마음자세, 성례와 기도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주는 가장 값진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개인의 감격과 은혜 받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현대판 예배관(은혜받기 위해 예배드리는)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 점입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주관적인 유익에 앞서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어야합니다. 버로우스는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 예배관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바른 예배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소식지 전체에 대한 구독은 참교추 홈페이지 (www.fortruechurch.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ews

3월 신입회원 모임
- 3월 29일 (월) : 오후 8시
-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 Part 2
- 참교추 컨퍼런스 2014

5월 정기세미나
- 5월 24-26일 (월-수 / 2박 3일)
- 개혁 신앙의 정수(부흥과 개혁사)
- 거듭남과 십자가 [1-3과]

오빈교회

심플교회

물댄 동산 교회

하늘가족교회

채색옷을 입은 요셉

배국환 목사(생철교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창37:1-4)

들어가는 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힌 일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산 장면에 대해 성경신학적, 구속사적 관점으로 추측 가능한 범위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복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요셉

요셉은 17세 소년이 되었을 때 창세기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당시 17세면 아버지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지명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베냐민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아였기에 야곱은 요셉을 기업 이을 자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복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그들이 행한 어떤 과실을 야곱에게 말합니다. 때로 어떤 해석자는 이 행동을 '고자질'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을 이기적이고 입이 가벼운 철부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요셉의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도리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고하였다'는 말에 대해서도 요셉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일러바쳤다고 말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공동번역이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을 거들어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바쳤다"

이와 같은 번역은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하는 요셉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은 '요셉이 그들의 과실(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아닌 형들의 행실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형들의 단순한 실수를 고자질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였더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요셉의 말을 듣고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은 야곱

왜? 야곱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자신에게 고하자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장면을 언뜻 보면 야곱이 늦은 나이에 요셉을 얻어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 그에게 채색옷을 준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야곱이 요셉을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한 원인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섣부르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들의 허물을 고자질 하는 요셉에게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무언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의 맛소라 본문을 직역하면, ' 왜냐하면 그는 그에게 있어서 노년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그에게 채색 옷을 만들었다.'입니다. 여기서 '노년의 아들'을 대부분의 번역 성경이 '늙어서 얻은 아들'로 기술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아들'이라는 말이 반드시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일 또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아들(בֶּן־זְקֻנִים)'의 가능한 또 다른 번역

성경에서 '노인, 노년'을 말할 때에는 종종 '지혜'를 상징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시편 119:100),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레위기 19:32) 따라서 '노년의 아들'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년과 같은(지혜에 있어서) 아들' 또는 지혜에 있어서 노년과 같은 아들 , 즉 '지혜의 아들'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아들'을 '노년에 얻은 아들'로 보지 않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노년에 얻은 아들은 베냐민이지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과 형들의 나이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밧단아람에 들어간 후 여러 아들을 낳다가 13년 쯤 되었을 때 낳았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20년을 지냈으니 첫째와 나이 차이가 많아도 10살이고 다른 형제들과는 불과 몇 년 터울에 불과할 것입니다. 베냐민이야말로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형들과 수십년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즉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로 말할 수 있는 인물은 베냐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노년의 아들'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 해석하기 보다는 '지혜의 아들'로 번역함이 더 원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채색옷을 입은 요셉

왜 야곱은 형들에 대한 요셉의 보고를 듣고서 그에게 채색옷을 입혔을까요? 채색옷은 당시 집안에 두 사람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집안의 가장이나 족속의 우두머리이고, 다른 사람은 그 주인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요셉이 형들의 과실을 고한 일을 듣고서 이를 좋게 여겨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보고를 듣고서 그가 '지혜로운 아들'이므로 채색옷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야곱에게 말한 형들의 '과실'은 무엇일까요? 또 요셉이 그 형들의 과실을 보고한 일이 어떻게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 유추해 볼 뿐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과실, 악의적인 과실을 고하더라'는 것에서 한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배다른 이복형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야곱의 본처의 자식이 아닙니다. 여종의 자식들입니다. 이 때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사라, 곧 자유자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갈, 곧 종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위한 잔칫날에 그를 희롱하고 놀림감 삼았습니다. 혹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희롱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 곧 기업을 이을 주인의 아들을 희롱한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상황과 같은 내용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하기로는 두 여종의 아들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대한 것 같은 조롱과 희롱으로 요셉에게 모욕을 주었던지, 또는 종의 아들들로서 야곱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한 것을 요셉이 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 한 요셉을 야곱이 매우 신뢰한 것입니다.

요셉의 다른 형제들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아들들을 볼 때 앞날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마디로 아주 잔인하고 흉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디나 사건이 그들의 잔혹한 폭력성을 말해줍니다. 화평하기 위해 혼인을 청하는 세겜과 그 아버지는 물론이거니와 사건과 상관없는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야비한 속임수를 통해 도륙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의 여자들을 취하고 재물을 약탈합니다. 그렇게 한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장남인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여 아버지를 욕보인 자입니다. 또하 '유다'는 창기와 동침하였는데 알고보니 창기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제대로 된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가문을 믿고 맡길만한 아들이 요셉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요셉 - 지혜의 아들 요셉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들의 과실을 지혜롭게 고하는 것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보고는 분별력 있고 정확했습니다. 그가 주인의 아들로서 여종의 아들들과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형제들과도 대조되는 지혜로움(하나님을 경외하는)이 있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요셉의 나이 17세입니다. 집안에서 공적으로 가문을 이을 자로 인정되는 나이, 곧 채색옷을 지어 입힐 만한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야곱은 채색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볼 때에, 17세의 요셉을 단순한 고자질쟁이 및 품행이 방정한 자로 여기는 것보다 채색옷을 준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요셉을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더 신빙성 있게 여겨집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야비하고 욕심쟁이며 고자질쟁이인 요셉이 갑작스럽게 공명정대해지고 보디발 아내의 거듭되는 유혹도 뿌리치며 이기는 모습들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형제들

이제 야곱이 요셉을 가문을 맡길만한 자로 여기고 채색옷을 지어 입혀 집안 모든 자에게 공포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합니다.

성경은 형들의 요셉을 향한 '언사가 불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역하면 '샬롬이란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입니다. 샬롬은 "평안하냐"라는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면 흔히 하는 인사입니다. 요셉과 형들 간에 히브리인들의 흔한 인사인 '샬롬'이란 인사말조차 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나빠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들의 모습은 육에 속한 자들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일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야곱이 자신들이 아닌 동생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면 이 일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런 생각보다 시기와 미움과 분노에 휩싸여 마음이 조장하는대로 행동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샬롬은 '평안'입니다. 장차 온 집안에 샬롬을 가져다 줄 요셉에 대해서 형들은 샬롬의 인사를 거부했습니다. 요셉이야 말로 샬롬으로 대해야 할 인물인데 말입니다.

참으로 이 일은 예수님의 모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샬롬의 왕이십니다. 참 샬롬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샬롬을 주실 분을 샬롬으로 맞이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대적하고 박해한 것입니다.

맺음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된 본 장에서 우리는 에서의 족보와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하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족보가 에서의 족보 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에서의 후손보다도 못한, 인격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은 것이 전혀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구원의 통로 삼으셨습니다.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언약과 구원을 성취하시기 까지 그들을 신실히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바르고 옳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오직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다가 만 것 같은 우리에게 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하신 하나님만을 찬미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생철교회

설교 전문을 축소 편집한 것입니다.

『참교추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기문 목사님 | 송정교회

참교추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 맑고 공기 좋은(가끔 미세 먼지도 많아요) 포천에서 목회하는 안기문입니다.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아내와 세 명의 자녀(14세 아들, 12세 아들, 7세 딸)가 있는데요,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홈스쿨링을 하게 된 계기는 저의 신앙적인 변화와 관계가 깊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지 꽤 되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였어요. 용호동입니다. 언덕 하나를 넘어가면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라는 조용필 노래 나오는 그 동네가 나옵니다. 아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원래 그곳은 음성 나환자촌(한센병)입니다. 거칠게 말씀드리면 부산에 살면서 실패한 사람들이 용호동으로 들어오고, 거기서도 살기 힘들면 나환자촌으로 들어가서 양계일을 하며 삽니다. 물론 지금은 그곳이 개발되면서 개과천선한 곳이 되었지요.

그런 곳에서 자라다 보니 중고등부 시절에 소박한 꿈은 어떻게 하든지 그 동네를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몰라도 조금 일찍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독립적으로 산다고 하며 살았던 20대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정말 저의 욕망을 좇아서 살았던 때였습니다.

30대 초반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의 바람도 있었고, 막연하나마 어린 시절 저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30대는 청년부 사역이 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청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령, 늦깎이 청년들의 주관 관심사는 아무래도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중매 사역을 아주 열심히 했지요. 실제로 성사된 경우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진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며 때로 눈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구를 맡게 되었어요. 하도 심방을 많이 해서 일 년에 450회 이상을 심방하기도 했습니다. 고단한 과정에서 육체도 힘들고 제 영혼도 심각하게 병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심방을 받는 분들의 영혼의 상태에 맞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위로하는 말들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들기도 했지요. 이것이 목회인가 하는 고민도 했고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이런저런 책들을 뒤졌어요. 그러다가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도 듣게 되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서도 조금 알게 됐어요. 제가 다닌 신학교는 장로회신학대학원입니다. 다양한 신학을 배웁니다. 개혁주의 신학도 그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혁주의 신학을 제대로 배우진 못했어요. 여하튼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서적을 뒤지며 고민하다가 지금의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40대 초반입니다. 제가 가진 달란트(음악적인 부분)를 생각하니 여기서 노력하면 금방이라도 교회가 성장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지요. 그때까지도 허영의 시장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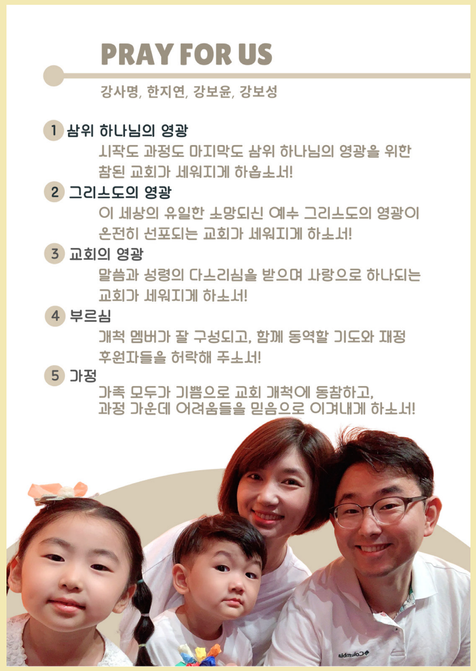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청교도 서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몇 권의 책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후에 약 2~3년 동안 두문불출하며 청교도 서적들을 탐독했던 것 같습니다. 책이 책을 연결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를 알게 되었고요. 몇 차례 신앙감정론을 읽으면서 제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를 갖기도 했어요.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변화가 있었고, 우선 저의 가정에서의 변화가 컸습니다. 가정예배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양육하고자 홈스쿨링도 하게 되었어요. 말이 길어졌는데, 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교추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컨퍼런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몇 번 참석하기도 했어요. 박순용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고요, 참교추에 가입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재작년까지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코로나 상황이라 함께 더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용기를 내어 참교추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 참교추에 애정을 느낄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차분하게 일 년을 보내면서 서서히 모임에 대한 열정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좋은 백신이 개발되고 수입된다고 하니까 코로나도 곧 종식될 거란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봄날을 속히 허락하시길 기대합니다. 혹시 포천에 오실 일이 있으면 꼭 연락주세요. 맛있는 걸로 대접할게요. 모두 주안에서 평안(에이레네)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참교추 회원 기도제목 나눔

* 강사명 목사님 [개척교회 준비]



* 정종남 목사님 [하늘가족교회]

1.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 자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저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3. 하나님께서 요양병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4. 신우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회사명 : 글라이트) 매주 화요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사원들에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해주세요.